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김종인<sup>1</sup>, 김윤정<sup>1\*</sup>  
<sup>1</sup>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 Study on Forecasting Factors of Baby Boomer's Social Participation Desire After Retirement

Jong-In Kim<sup>1</sup> and Yun-Jeong K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할당표본을 한 강현정(2012)의 데이터 111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회참여는 경제활동 77.7%, 자원봉사활동 27.0%, 여가활동 79.3%로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가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노후 사회참여 의향은 경제활동 80.9%, 자원봉사활동 76.7%, 여가활동 82.2%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둘째, 현재 사회참여를 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에도 사회참여를 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참여를 하지 않으나 노후에는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55.8%,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70.6%, 여가활동의 경우에는 66.5%였다. 셋째, 현재 사회참여여부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지속성의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으며, 노후 삶의 만족도에 중요 변수로 알려진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orecasting factors of baby boomer's social participation desire. For this purpose, I utilized Hyun-Jung Kang(2012)'s data whose 1,115 sample were collected based on residential area and gender.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7.7% of baby boomers are actually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27.0% in volunteering activities and 79.3% in leisure activities. 80.9% of baby boomers hav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fter retirement, 76.7% in volunteering activities after retirement and 82.2% in leisure activities after retirement. Seco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after retirement, those who are currently having social activities turn out to have higher intention to participate social activities after retirement. Those who wish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lthough they don't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currently, turn out to be 55.8% for economic activities, 70.6% for volunteering activities and 66.5% for leisure activities. Third, whether they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turns out to be most compelling forecasting factor for the desire on social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continuity theory. and proposed that you need from the preparation of Middle - aged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important social variables known as old ag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Baby boom generation. Economic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participation. Volunteering activity.

### 1. 서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간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2010년 현재 총인구 대비 14.6%(약 721.5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24.3%[1]에 육박

본 논문은 2011년도 한서대학교 교내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un- Jeong Kim (Hanseo University)

Tel: +82-41-660-1251 email: twoyun21@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7, 2012

Revised (1st January 15, 2013, 2nd January 31, 2013)

Accepted February 6, 2013

할 정도로 거대한 노인집단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기대여명은 55년생이 2010년 현재 26.51년, 63년생은 37.31년으로[1] 대략 30년 정도의 기간을 퇴직 이후에 보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최소 30여 년간 퇴직 후 수입, 연금, 건강비용, 노후 케어, 노후사회참여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이후의 인생 또는 노년기의 의미를 지금의 노인과는 달리 생각한다[2,3].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교육수준도 높아 퇴직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는 세대이다. 이에 따라 노년기 여가생활, 문화생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5,6]. UN, WHO,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노인의 사회참여를 고령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을[3] 고려하면, 증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년기 사회참여와 관련된 연구[7-15]가 상당수 진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노년기의 사회참여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노년기 사회참여가 노년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국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당수 발표되었으나, 이들의 사회참여, 사회활동 등과 관련된 연구는 별로 없다.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행동[16],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준비[17], 베이비붐 세대와 마케팅[18],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19] 등이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나 노후준비계획에 관한 연구[19,20]에서도 이들의 경제적 측면과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지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과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대표적으로, [21,22])가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는 사회참여가 중요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참여를 할 것인지 혹은 중년기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그간 발표된 사회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7-15)는 주로 현재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가 몇 편 있다. 그러나 [23]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의 변수로 사회참여를 다루었다는 제한점이 있고, 또한 [24]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포괄

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15,33,34]을 종합해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노년기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크게 봤을 때 경제적 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을 포함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유급과 무급의 활동, 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하위 유형의 구분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노년기 사회활동의 총체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제한점이 있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의 하위유형을 정의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연구에 따라서는 사회참여의 한 유형인 경제적 활동, 자원봉사, 사회활동, 교육활동, 여가활동 등 어느 한 두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5,23,29,30-32]는 베이비붐 세대(또는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중년층)의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등 사회참여의 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하였다든 제한점이 있다. Maier & Klumb[14]는 활동적 여가, 건강관련활동, 독서, TV 시청, 사회활동(대면대화, 방문, 전화통화) 등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자원봉사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참여에 관한 지속이론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중년기에 수행했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중년기와 비슷한 역할을 노년기에도 지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년기 사회활동이라고 보았다[25]. 현재의 활동이 노후의 활동으로 이어진다[26]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활동이론에서도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오래 중년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활동적이어야 하며[25,27], 사회참여의 범위가 클수록 노후의 생의 만족 또한 높다[28]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활동에 관한 활동이론과 지속성 이론에 근거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가 노후의 사회참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중년기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전에 그들의 노후 사회참여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 가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둘째, 선행연구자의 개념을 종합하여 사회참여의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의 사회참여를 2인 이상의 공식적·비공식적 단계에서의 참여활동으로, 경제활동, 자원봉사, 여가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즉, 돈을 버는 경제활동과 남을 위한 봉사활동, 자신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하위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교육활동의 경우 선행연구 [35,36,37]를 토대로 여가활동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활동이나 여가활동은 자신을 위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구분 점을 두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활동을 여가활동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혼자 하는 활동이나 가족과의 행사는 제외하였다. 가족 역시 비공식적인 단계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개념을 좀 더 협의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대상으로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 실태 및 노후 사회참여 의향을 파악하고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의 자료

본 연구는 [38]의 데이터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38]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조사된 데이터이다. 설문 내용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육구조사를 위해 현재와 노후의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교육활동에 관한 실태와 육구 파악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의 참여여부와 노후 참여의향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8]은 전국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사회참여 육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시 단위), 농촌(군 단위)에 거주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H대학교 재학 중인 사회복지계열 학생 50명과 석박사과정 학생 5명, 각 지역의 거주 공무원 5명을 조사원으로 하였다.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문항에 대한 설명을 조사원이 한 후, 직접 설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8월30일부터 2011년 10월20일

까지 약 두 달간으로, 1,200부가 회수된 데이터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이 맞지 않는 경우, 무응답이 많은 경우 등 통계 자료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115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사회참여실태

현재 사회참여 실태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의 3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 2.2.2 노후 사회참여 의향

노후 사회참여 의향은 ‘노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후에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의 3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다.

### 2.2.3 노후사회활동참여 필요성

노후사회활동참여 필요성은 ‘노후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3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5점)’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 2.2.4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 종교, 거주지, 가족동거여부, 건강상태, 수입, 직업을 사용하였다.

## 2.3 분석방법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빈도 분석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교차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을 파악하였다.

## 2.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베이비붐 세대는 남녀 비율과 거주지 비율이 고른 편인데 이는 성별과 거주지에 따라 할당표본을 했기 때문이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59년 출생자는

39.6%, 1960-1963년 출생자는 60.4% 분포되어 있어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다소 많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52.08(2.51)세이다.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92.6%, 배우자가 없는 베이비붐 세대가 7.4%로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 48.8%와 대졸이상 38.4%로 고졸미만 12.8% 보다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많으며,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핵가족이 전체의 2/3가량을 차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중’ 59.5% 혹은 ‘상’ 32.4%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70%이상이고, 가정의 월 소득은 평균 501.78만원이다. 직업은 사무관리/전문직이 38%정도로 가장 많지만 판매/서비스직과 무직, 농업/농림업/단순기능직도 대략 20% 수준이다.

### 3. 연구결과 및 해석

#### 3.1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을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봤다(Table 1).

먼저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경제활동은 77.7%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활동 27.0%, 여가활동 79.3%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경제활동참여의향은 80.9%,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은 76.7%, 노후여가활동참여의향은 82.2%로 현재 사회참여에 비해 노후 사회참여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Table 1] Baby Boomer'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

Classification		N	%
Economic Activity (n=1102)	Yes	856	77.7
	No	246	22.3
Volunteering Activity (n=1106)	Yes	299	27.0
	No	807	73.0
Leisure Activity (n=1115)	Yes	884	79.3
	No	231	20.7
Economic Activity after Retirement (n=1102)	Yes	891	80.9
	No	211	19.1
Volunteering Activity after Retirement (n=1096)	Yes	841	76.7
	No	255	23.3
Leisure Activity after Retirement (n=1088)	Yes	894	82.2
	No	194	17.8

#### 3.2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 간의 관계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Table 2).

현재 경제활동 참여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87.8%가 노후경제활동참여 의향이 있으며,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 중 44.2%가 노후경제활동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노후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55.8%로 과반수가 넘는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93.2%가 노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 중 29.4%가 노후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노후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70.6%로 2/3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93.2%가 노후여가활동참여 의향이 있으며,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 중 33.5%가 노후경제활동참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노후에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66.5%였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Baby Boomer's Current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after Retirement

Classification		Intention on Economy Activity after Retirement		X <sup>2</sup>
		Yes	No	
Currently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n=1091)	Yes	745(87.8)	104(12.2)	123.349***
	No	135(55.8)	107(44.2)	
Classification		Intention on Volunteering Activity after Retirement		X <sup>2</sup>
		Yes	No	
Currently Participating in Volunteering Activity (n=1094)	Yes	274(93.2)	20(6.8)	61.278***
	No	565(70.6)	235(29.4)	
Classification		Intention on Leisure Activity after Retirement		X <sup>2</sup>
		Yes	No	
Currently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y (n=1088)	Yes	743(86.3)	118(13.7)	47.947***
	No	151(66.5)	76(33.5)	

\*\*\* p<.001

### 3.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사회참여활동의 예측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경제활동참여의향,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 노후여가활동참여의향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현재의 사회참여여부, 그리고 노후 사회참여필요성을 투입하였다(Table 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경제활동참여욕구 예측모형은 Chi-square= 170.996(p=.000)로 유의했으며, 설명력 Nagelkerke R<sup>2</sup> = 28.5%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경제활동참여의향은 대졸이하인 경우, 현재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경제활동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노후경제활동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현재소득활동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경제활동참여의향이 4.418배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욕구 예측모형은 Chi-square= 173.503(p=.000)로 유의했으며, 설명력 Nagelkerke R<sup>2</sup> = 27.3%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은 대졸이상인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자원봉사활동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현재자원봉사활동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노후 자원봉사활동참여 의향이 4.037배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여가활동참여욕구 예측모형은 Chi-square= 84.208(p=.000)로 유의했으며, 설명력 Nagelkerke R<sup>2</sup> = 15.3%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여가활동참여의향은 대졸이상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여가활동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노후여가활동참여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강력한 예측력을 보인 변인은 현재여가활동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노후 여가활동 참여의향이 2.566배 높았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대상으로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 실태 및 노후 사회참여 의향을 파악하고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의 사회참여실태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Table 3] Forecasting Factor of Baby Boomer'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after Retirement (n= 1,115)

	Economic(1=yes, 0=n)		Volunteering(1=yes, 0=n)		Leisure(1=yes, 0=n)	
	B	Exp(B)	B	Exp(B)	B	Exp(B)
Constant	-.865**		-2.713		-4.301	
Gender(If male=1)	.662	1.939	-.417	.659	-.510	.600
Age	-.051	.951	-.024	.976	.014	1.015
Have Spouse? (If with Spouse=1)	-.306	.736	.369	1.446	.202	1.224
Academic Background (If college graduate =1)	-.575**	.562**	.415*	1.515*	.509*	1.664*
Religion(If with Religion=1)	.197	1.218	.365	1.441	.345	1.411
Residential Area(If Metropolitan=1)	-.100	.905	.023	.977	.318	1.374
Together Living Family(If with Spouse=1)	-.092	.912	-.191	.827	-.116	.890
Health Condition	.165	1.179	.255	1.290	.350*	1.419*
Living Standard	-.035	.966	-.132	.876	.132	1.141
Monthly Income	.000	1.000	.000	1.000	.001	1.001
Job(If with Job=1)	-	-	.612*	1.845*	.668*	1.950*
<b>Currently Participating (If yes=1)</b>	<b>1.486***</b>	<b>4.418***</b>	<b>1.396***</b>	<b>4.037***</b>	<b>.942***</b>	<b>2.566***</b>
<b>Necessit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b>	<b>.947***</b>	<b>2.579***</b>	<b>1.041***</b>	<b>2.832***</b>	<b>.460***</b>	<b>1.585***</b>
chi-square	170.996***		173.503***		84.208***	
Nagelkerke R <sup>2</sup>	.285		.273		.153	

\* p<.05, \*\* p<.01, \*\*\* p<.001

Remarks) In case of economic activity, as 'if having a job' is same factor as 'currently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if having a job' was not included as an independent factor.

의향 예측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회참여실태를 보면, 경제활동은 77.7%, 자원봉사활동 27.0%, 여가활동 79.3%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사회참여 의향은 경제활동 80.9%, 자원봉사활동 76.7%, 여가활동 82.2%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제활동의 경우 [39]이나 [40]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과 유사하지만, 노후경제활동참여의향에서는 [41]에 비해서는 8%정도 높고 [42]에 비해서는 8%정도가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수혜 세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적고 사회보장이 불안정하다. 또한, 세대 간 불평등과 자녀세대에게 지탱할 수 없는 빚더미를 안게 한 책임이 있는 세대[43,44]라는 미국의 지적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노후 경제활동 의향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경우는 자원봉사비율이 대략 3-17%로 나타난 선행연구[29,34,38]나, 노후자원봉사 의향이 대략 12%-50%였던 선행연구[30,40]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료수집에서의 차이로 보이며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의 경우 선행연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하위유형별로 참여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와 비교분석이 어려우나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노후에도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의 삶을 위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경우 현재의 참여 실태와 노후참여의향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자원봉사의 경우는 현재에 비해 노후 의향이 거의 3배수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 개인에게는 퇴직으로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며, 상실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가치성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자신이 사회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갖게 해준다[45,46]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 높았다[47]는 결과를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자원봉사활동참여 의향을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의 사회참여로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을 놓쳐서는 안되지만,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의향이 급증함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은 논의의 뒷 부분에서 다루었다.

둘째, 현재 사회참여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를 보면 현재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에도 참여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참여를 하지 않으나 노후에는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 55.8%, 자원봉사활동 70.6%, 여가활동 66.5%라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노인층과는 달리 노년기를 가실현 기회 또는 제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48].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자의 주체이자, 다양한 소비의 적극적 주체로서, 높은 소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노년의 삶을 위해 부족하긴 하지만 1988년 국민연금 도입과 함께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 연금 수혜층이기도 하다[49].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및 소비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는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노후에는 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후사회참여를 하고자 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역시 노년기의 경제적 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참여하지 않으나 노후에 참여하기를 위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이들이 노후의 사회참여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노년기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각과는 달리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년기 우울감, 고립감 등이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사회참여욕구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직업이 있는 경우, 현재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노후사회참여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노후경제활동, 노후자원봉사활동, 노후여가활동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영향변인이자 세계 및 사회와의 연결고리로서의 의미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로 직업유무는 노후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노년기의 일과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보완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학력의 경우 사회참여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대졸이상일 경우 자원봉사와 여가활동의 향은 높으나, 경제활동의향은 낮았다. 이는 초졸 및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이 높다는[50]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노후 자원봉사참여 의향이 높으며[31,41], 중고등학교 졸업이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높다[51]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 여가활동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 중 32.4%가 건강상태가 ‘상’이거나 ‘중’이라고 응답하여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의 여가활동이 높았다는 [5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현재 사회참여여부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52]은 삶에서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들에게 유용했던 대처전략이나 활동, 사고방식 등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청년기 때에는 자신의 개성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표현하고, 중년기가 되면 이러한 자신의 정체감에 근거해서 활동과 역할을 선택한다[26]. 노년기가 되면 대다수의 사람이 사회적 활동의 수와 참여했던 시간을 줄이지만 이는 일생을 통한 ‘선택’에 근거하게 된다[25].

이와 같은 지속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에는 청년기부터 중년기를 통한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유용했던 사회적 활동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참여여부가 노후 사회참여 의향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자[45,52]도 지속성의 원리가 직업이나 자원봉사활동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참여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이라는 그 간의 선행연구를 고려해 보면, 노후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정체감이거나 자신의 직업조건, 자신의 선호 등에 적합한 사회참여 활동이 무언인가를 일생을 통해서 스스로 관찰하고 선택

하고 실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선택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중년에게 적합한 사회적 활동과 프로그램,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첫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실제 완전 은퇴연령은 남성 평균 71.2세, 여성 평균 67.9세로 기업의 정년퇴직 시점과 실질 은퇴연령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서구에서 관찰되어왔던 ‘징검다리 직업 (Bridge Job)’이나 시간제 근로의 확산과 같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점에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24]. 또한, 퇴직 후 희망하는 경제활동 형태는 ‘현 직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근무’가 46.2%로 현재 직장에서 퇴직 후 같은 직장에서 형태만 바뀌어서 계속 근무하거나 재취업 되기를 원하고 있다[23]. 정상적인 은퇴연령 이후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는 한 노년기의 고용은 어려운데 이는 직업구조에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52].

따라서 현재 경제활동여부가 노후 경제활동참여 의향에 가장 예측력 있는 변수라는 점,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근로구조에 대한 예측,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같은 직장에서의 재고용 바람 등을 고려할 때, 기업차원에서 현재 고용시장에 남아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같은 직장에서의 계속고용이나 재취업의 기회 제공, 시간제 근로 등을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보면 현재의 자원봉사여부가 노후 자원봉사의향의 가장 예측력 있는 변수이지만, 앞서 살펴본 본 연구에서 현재의 자원봉사참여비율에 비해 노후자원봉사참여의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만이 아니라 노후자원봉사활동참여 의향이 있는 집단을 선별해 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자원봉사의 영역이 ‘여가활동분야(문화해설 등)’ 46.4%, ‘복지분야(요양원 방문 봉사 등)’, ‘교육분야(저소득층 학생 지도 등)’ 11.6% 등[23]인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욕구에 적합한 자원봉사영역을 개발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도 그러하지만 특히 청장년시기의 여가경험은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3]. 즉, 노인은 과거에 참여했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53].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이 지속적인 하나 바라는 여가활동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즉,

40대와 50대의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32]는 현재 예비노년층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으로 휴식·낮잠이 7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1~2년 후 근미래에는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영화·음악·화·연극·관람에 대한 바램이 52.3%로 가장 높았다. 또한 60세 이상 노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산책·약수터가기가 68.8%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노년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는 전체의 30%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후에는 경제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대략 80%선이다. 둘째, 노후 사회참여 의향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현재 사회참여여부이다. 이는 사회활동의 이론 중 지속성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노후의 삶의 만족도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진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년기부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할당표본을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참여와 노후 사회참여 의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후 사회참여 의향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서 현재 사회참여여부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지속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노후의 삶을 위한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의 개념의 정의에 있어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에만 초점을 둠으로서 다양한 가정 내 활동이나 개인적인 활동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가정 내의 가사활동이나 손주들보기, 친인척간의 관계 맺기 등은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경제활동이자 자원봉사활동이며 여가활동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에 주된 초점을 둠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에 관해 파악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Model Life Table for Developing 2010. Statistics Korea. 2011.  
 [2] Easterlin, R. A. Birth and Fortune: The impact of

Numbers on Personal Welfare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3] H. K. Choi, A Study on Leisure-tim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Keimyung University. 2009.  
 [4] C. Y. Jo, "The study on the leisure practical use and part in society for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2, pp.7-34. 2003.  
 [5] Y. J. Lee, (The) Study of Activation of Leisure Education for the Elderly as Lifelong Education Preparing for Super-aged Society. Kangwon University. 2011.  
 [6] H. J. Kwon,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the cultural activitie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Kangnam University. 2007.  
 [7] J. W. Yoo, "Social Capital and Voluntary Association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 9, No.3, p.243-259, 2000.  
 [8] M. R. Jang, A Study on the Activation Scheme on Society Participation of the Aged : Focused on Guri Area. KONKUK University. 2010.  
 [9] G. J. Tak, Factors e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by leisure activity of the aged people. University of seoul. 2010.  
 [10] K. S. Baek, Y. S. Kwon, "Effects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 Type of Leisure Activit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35, pp87-105, 2007.  
 [11] Lennartsson, C. Silverstein, M. "Does engagement with life enhance survival of elderly people in Sweden? The role of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ety Science, Vol.25, pp335-342, 2001.  
 DOI: <http://dx.doi.org/10.1093/geronb/56.6.S335>  
 [12]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Ryan, R. M.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Bull, Vol.26, No.4, pp419-435. 2000.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00266002>  
 [13] Cantor, N. Sanderson, C. A. Life task participation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taking part in daily life. In: Kahneman D, Diener E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pp 230-243, 1999.  
 [14] Maier, H. Klumb, P.L. "Social participation and survival at older ages: is the effect driven by activity content or context?" Europe Journal of Ageing, Vol.2, pp.31-39. 2005.  
 DOI: <http://dx.doi.org/10.1007/s10433-005-0018-5>



- [15] Rowe, J. Kahn, R. Successful aging, New York: Random House. 1998.
- [16] Cleaver, M., Green, B. C. Muller, T. "Using consumer behavior research to understand the babyboomer tourist"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Vol.24, No.2, pp.274-287. 2000.  
DOI: <http://dx.doi.org/10.1177/109634800002400210>
- [17] Glass, J. C. Kilpatrick, B. B.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 An imperative for baby boomer women" *Educational Gerontology*, Vol.24, No.6, 595-617. 1998.  
DOI: <http://dx.doi.org/10.1080/0360127980240606>
- [18] Coleman, L. J. Hladikova, M. Savelyeva, M. "The babyboomer market" *Journal of Targeting,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Marketing*, Vol.14, No.3, pp.191-209. 2007.  
DOI: <http://dx.doi.org/10.1057/palgrave.jt.5740181>
- [19] Quine, S. Carter, S. "Austrian baby boomers' expectations and plan for their old age" *Austrian Journal on Ageing*, Vol.25 ,No1, pp.3-8.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741-6612.2006.00147.x>
- [20] Lusardi, A. Mitchell, O. S.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 The role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54, No.1. pp.205-224. 2007.  
DOI: <http://dx.doi.org/10.1016/j.jmoneco.2006.12.001>
- [21] H. N. Bang, D. G. Shin, S. G. Lee, J. Han, J. K Kim, I. C. Shin, Study on Korea Baby boomer lifestyle. Korea Labor Institute. 2010
- [22] S. H. Nam, Assets and Implications of Korea Babyboom Generation, Issue & Forcus, Vol.115, pp.1-8. 2011.
- [23] Y. J. Jung, A Study on the City of Ulsan's Baby Boomer's Retirement Plan for Productive Activities and Well-Aging. University of Ulsan. 2011.
- [24] G. H. Han, H. J. Choi, K. S. Eun, J. H. Lee, S. H. Joo, J. H. Kim,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Snu Institute on Aging. 2011.
- [25] Hooyman, N.R Kiyak, H.A.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8th edition, ALLYN AND BACON. 2008,
- [26] Atchley, R.C. Barusch, A.S. Social forces &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10<sup>th</sup> edition. Thomson : Wadsworth. 2004.
- [27] Bengston, V. L.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ere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The 1998 Burgess Award Le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3, pp.1-15, 2001.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1.00001.x>
- [28] S. D. Bark, Elderly Welfare, Yangseowon. 2008.
- [29] M. R. K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factors of women's quality of Life by generation-babyboom, X and pre-older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1, pp.7-34. 2011.
- [30] K. W. Sung, Y. S. Lee, Y. J. Chang. "Present and Future Needs for Leisure Activities of the Pre-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Vol.25, No.4, pp131-146, 2005.
- [31] KIHASA. Baby Boomer'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KIHASA. 2010.
- [32] H. K. Shin, J. L Lee, "A Study on the Change of Need about Leisure of Middle-Aged for Planning Elderly Leisure" *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s*, Vol.19, pp.1-1.7 2008.
- [33]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From:<http://www.kli.re.kr/klosa/ko/main/main.jsp> (accessed Des. 3, 2011)
- [34] S. C. Lee,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Older Persons" *Korean journal population studies*, Vol.32, No.1, pp.71-91,2009.
- [35] Y. J. Lee, (The) Study of Activation of Leisure Education for the Elderly as Lifelong Education Preparing for Super-aged Society. Kangwon University. 2011.
- [36] S. Y. Kim, M. S. Park, "A Study on the Leisur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the Urban Area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18, No.1, pp.67-84. 2000.
- [37] Ministry of Culture, Sports, Tourism. National Leisure Activities Survey 20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11.
- [38] H. J. Kang,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ocial integration to whether the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of baby boo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7, pp.429-448. 2012.
- [39] Y. M. Son, C. H. Kim, Study of Job Creation and Support for Baby boomers. KRIVET, 2011.
- [40] KIHASA. Baby Boomer' Demographic Profiles. KIHASA. 2012.
- [41] Statistics Korea. Social Research 2010. Statistics Korea. 2011.
- [42] Y. S. Kwak, A Study on Pro-Senior people's Needs for Economic Activities. University of Seoul. 2011.
- [43] Longman, P. Born to Pay.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87.
- [44] Peterson, P, HOWE, N. On Borrowed Time. New York: Touch Stone Books. 1988.

- [45] S. Y. Lee, A Study on Enhancement of Elderly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Social Services, KYUNG HEE University. 2004.
- [46] Herzog, A.R., Kahn, R.L., Morgan, J.S., Jackson, J.S. Antonucci, T.C,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44, No.4, pp.129-138, 1989.
- [47] M. A. Kwon, T. H. Kim, "A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for the Elderly -Comparison Study of volunteer work group and economic activities group"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Vol.28, No.4, pp.1089-1111, 2008.
- [48] G. U. Jo, J. S. Lee, S. G. Bark, The entry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 policy paradigm shift is needed.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1.
- [49] S. B. Kim, "Consumption Pattern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ge friendly Business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74, pp.28-37, 2011.
- [50] S. C. Le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
- [51] M. H.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Ewha University. 2008.
- [50] Atchley, R .C. The process of retirement: Comparing women and men. n M. Szinovarz, Women's Retirement. Beverly Hills, CA: Sage. 1982.
- [52] G. M. Ku. U. S. Lee, "The Influence of Past Leisure Activity Experience on Present Leisure Deepening of the Old" Korea sport research, Vol.6, pp.326-338, 2004.

**김 윤 정(Yun-Jeong Kim)**

[정회원]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부양, 성공적 노화, 노인 학대, 노인 자살, 노인의 정신건강

**김 종 인(Jong-In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2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고구려대학교 다문화복지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노년기 여가활동, 노후 사회참여, 노년기 일